

6.3인치 디스플레이·듀얼 카메라... '갤노트8' 체험해보니



듀얼카메라 등 새로운 성능을 구현한 '갤럭시노트8'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7'에서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S펜으로 '움짤' 짤! 거기까진 좋은데...

(움직이는 이미지·GIF)

베일 벗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6.3인치 화면·듀얼 카메라... 기대 못미친 혁신 배터리 용량 3300mAh로 감소... 안정감 선택 그립감도 다소 아쉬움... 9월 7일부터 사전예약



"새로운 것이 없어 아쉽다" '갤럭시노트8'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제품이자, 지난해 조기단종된 '갤럭시노트7'으로 구겨졌던 브랜드 자존심을 회복할 기대주로 꼽힌다. 듀얼카메라와 강화된 S펜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 것이 눈길을 끌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듯'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폰 시장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그만큼 돋보이는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삼성전자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애비뉴 아모리에서 제품 공개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8을 공개했다. 국내에선 9월 7일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5일 출시 예정이다. 가격은 90만원 후반대가 유력하다.

갤럭시노트8은 역대 시리즈 중 가장 큰 6.3인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나만의 GIF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 기능을 갖춘 S펜, 광학식 손떨림 보정기술(OIS)의 듀얼카메라를 달았다.

삼성전자가 가장 강조한 장점은 듀얼카메라다. 광각과 망원 두 개의 카메라를 활용해 다양한 효과를 담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듀얼카메라가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다. 이미 LG전자가 2015년 'V10'에 세계 최초로 시도했고, 애플도 '아이폰7플러스'

스'부터 도입했다. 중국 기업들도 지난해부터 듀얼카메라를 단 제품을 속속 선보이며 경쟁에 나섰다.

그 외 특징점으로 언급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나 생체인증, 빅스비 등은 모두 '갤럭시S8'에서 이미 선보인 것들이다. 외형도 갤럭시S8에서 크게 바뀐 점을 찾기 어렵다. 화면이 커지면서 무게(195g)만 조금 늘어났다. 그때문인지 24일 서울 시내 한 체험매장에서 직접 손에 쥐어본 갤럭시노트8은 그립감이 이전 모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배터리(3300mAh)의 경우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약동 맞인지 용량이 줄었다. 비슷한 크기의 '갤럭시S8플러스'보다 적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혁신보다 안정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갤럭시S8에서 업그레이드된 무언가가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외 시장상황도 변수다. 국내에선 당장 9월 15일부터 선택 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지고, 월말에 지원금 상환제도 일부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사전예약이나 구입을 일단 미루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 경쟁사 애플이 9월 미국에서 '아이폰8'을 공개한다. 루머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소비자들은 '아이폰' 등장 10주년을 맞아 혁신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갤럭시노트8엔 부담 요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유해물질 덩어리'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4일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가운데 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 등 30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케이스는 모두 제조국이 중국이었다.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mg/kg 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mg/kg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이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휴대폰케이스에 대한 개선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1256만명 들어오고... 2661만명 나가고...

올해 관광수지 적자 17조원 사상 최대

올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150억 달러(약 16조92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재의 방한외국인 감소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방한객 수는 전년 대비 468만명 감소한 1256만명에 머물 전망이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수는 10월 장기연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266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은 "내국인 출국자가 외국인 입국자의 2배를 넘는 기형적 상황이 2007년 이후 다시 재현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관광수지 적자 폭도 2007년 108억달러에서 올해는 사상 최대인 150억달러로 추정되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오후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32개 해외지사 및 10개 국내지사 합동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인바운드 마케팅 대책 화상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관광공사는 복합 위기에 따른 장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시장다변화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대만, 러시아 등 방한객이 늘어나는 성장시장에 대한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 방한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형역외광고와 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을 벌이고, 방한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헬니스, 럭셔리관광, 글로벌 등의 프리미엄 상품 개발과 ICT 기술을 활용한 개별관광객(FIT)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Grid puzzle 1: A 10x10 grid with numbers 1-9 and empty cells for a logic puzzle.

Grid puzzle 2: A 10x10 grid with numbers 1-9 and empty cells for a logic puzzle.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링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Table with 2 columns of numbers and symbols, likely a solution key or related puzzle data.

날씨와 생활 25일 (금요일) section with a weather map of Korea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like Seoul, Incheon, and Busan.

Table with 3 columns: 산 날씨 (Mountain Weather), 바다 날씨 (Sea Weather), and 미세먼지 (PM2.5). Lists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locations.

주간 날씨 (주간 날씨) section showing a 7-day weather forecast for Seoul.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25일(금요일) 음력 7월 4일

Table for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Park Kyung-ho's Good Luck Day) with 10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daily forecasts.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Sports Dong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